

## 성공적인 성취자의 심층 면담을 통한 영재교육의 방향성 탐색

박 경 빈	이 재 호	박 명 순	이 선 영
가천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전 미 란	류 지 영	안 성 훈	변 순 화
공주대학교	KAIST	경인교육대학교	가천대학교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의 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을 조사하고 영재교육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취자 60명을 대상으로 6개 분야(교육, 전공, 가정 및 부모, 대인관계, 여가시간, 업적 및 성공요인)에 대해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많은 성취자들은 적극적인 학생이었으며, 가정은 화목하고 자율적이었고, 차별화 교육 및 학생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멘티를 지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공 결정 및 교육은 재능과 흥미의 발견 시기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가시간 활동으로는 운동, 음악, 독서를 중요시하였으며, 성취의 원동력이 된 것은 호기심, 자신감 등 개인 내적 특성이었다. 영재교육을 수혜한 성취자들은 영재교육의 경험이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담 결과를 영재교육의 개선 방향과 관련지어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성취자, 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 영재교육 수혜자, 영재교육의 개선 방향

### I. 서 론

우리나라는 1983년 최초의 과학고등학교인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영재교육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년 후 동 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경과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령의 지속적 보완, 학술연구의 활성화, 영재교육연구기관의 분야별 확충, 영재 교육과정 및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영재교육 국제 교류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양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교신저자:** 이재호(jhlee1281@naver.com)

\* 이 연구는 2013년도 정부(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013; 박경빈, 2012). 이러한 시점에서, 영재교육이 우리나라 인재육성 체계 속에 보다 확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재교육의 적절성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영재교육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에서는 영재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영재들의 발달이나 성취 요인들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Terman은 1920년대 당시 평균 12세의 IQ 140 이상 아동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아동기, 초기 성인기, 중년기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영재교육센터가 1972년 당시 SAT 수학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나타낸 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Benbow, 1992; Lubinski & Benbow, 1995) 영재 장기 추적 연구로 SMPY(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가 있다. SMPY는 학교 및 직장에서의 성취, 지적만족, 능력, 흥미, 생활 선호에서 남녀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대학 진학, 교수임용율과 연봉 등에 대해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Perleth와 Heller(1994)는 1985년에 1, 3, 5, 7, 9, 11학년들을 대상으로 영재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독립적인지를 검증하고, 영재성, 성격, 환경이 성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종단 연구를 6년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2004, 2005)에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 연구의 계획을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 횡단 분석 결과만 보고되었을 뿐, 연구비 확보 등의 문제로 종단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태연 등(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의 입학, 이공계로의 진학을 분석과 남녀 간 진학현황과 교육수혜 기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제한적이거나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졸업생을 추적하여 그들의 진학 결과를 알아본 연구들도 있다(김언주 등, 2000; 심재영 등, 2006). 김언주 등(2000)은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분석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연구 생산성 분석 및 학위 취득자들의 견해를 통해 과학고등학교 교육의 전반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 심재영 등(2006)은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고등학교 3년간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KAIST에 입학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성공 집단과 저성취 집단에 대한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사회변인을 조사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재들의 성취에 개인 및 가정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영재들을 추적 조사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은 종합적인 영재교육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한 개인의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영재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받는 교육 변인 혹은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 변인들도 있을 수 있는 바, 선행 연구들은 이 변인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영향을 다루는데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단 연구는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되며, 특히 연구 대상자의 중도 탈락이 연구의 결과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종단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인물들의 학습 경로를 역으로 추적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영재란 장차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교육경험, 학습 등을 역추적하여 성취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현행 영재교육의 타당성 검증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심층 면담은 연구 대상자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사상 같은 의미 있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므로(McAdams, 1993, 2006), 성취자들을 심층 면담함으로써 기존의 검사지 위주의 연구들에 비해 성공 요인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취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면담 결과를 영재교육의 방향성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면담 대상자

심층 면담을 수행할 성취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일반 성취자들의 경우, 먼저 출판물, 수상실적, 언론 매체, 연구실적 등을 통해 면담 대상 Pool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31 World-Leading Korean Scientists와 29 World-Leading Korean Engineers,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와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선정한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 시사저널과 미디어리서치에서 선정한 주목되는 분야별 미래 지도자 300인, 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 한국연구재단의 한국과학자상 수상자와 한국공학상 수상자 그리고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 대한수학회의 상산 젊은 수학자상 수상자, 한국갤럽에서 선정한 올해를 빛낸 인물, 헤럴드경제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파워 60인, 융합인재 연구에서 탐색한 연구자 등을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접촉이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안배하여 심층 면담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영재교육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졸업자,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과학고등학교 졸업자, 영재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대상자 Pool을 구성하고 동문회 추천, 학교 추천, 수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층 면담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심층 면담 후보자를 접촉하여 면담 승낙을 받아 최종 면담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생 등 다른 유형의 영재교육 수혜자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여 성취를 이룰 만큼의 연령에 도달해 있지 않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면담 대상자는 60명으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일반 성취자 19명, 영재교육 수혜자 41명이었다. 면담 대상자의 직업, 분야, 성, 연령 분포는 <표 1>과 같다.

< 표 1 > 면담 대상자의 기초 배경

배 경	인원수	배 경	인원수
직업		분야	
대학총장	1	예체능(A)	6
교수	9	인문(H)	4
재단·연구소 임원	6	수학(M)	1
기업대표	1	정치(P)	2
종교인	1	과학(S)	46
예술감독	1	경영(V)	1
회사원	2	계	60
대학원생	39		
계	60		
연령		성별	
20대	41	남	49
30대	1	여	11
40대	2	계	60
50대	7		
60대	5		
70대	4		
계	60		

## 2. 면담 내용 및 방법

면담 내용은 교육, 전공, 가정 및 부모, 대인관계, 여가시간, 성공요인의 6개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2~3개의 요인에 대해 <표 2>와 같이 핵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19개의 핵심 문항에 대한 응답의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 3. 면담 내용 분석

성공적인 성취자에 대한 심층 면담 내용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심층 면담 녹음 내용을 전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전사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심층 면담 내용을 질문 별로 재배치하여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넷째, 재배치된 심층 면담 내용을 핵심 구문(Key Phrases)과 핵심 단어(Keywords)를 중심으로 1차 요약 실시하였다. 다섯째, 1차 요약된 심층 면담 내용을 핵심 단어(Keywords)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2차 요약 실시하였다. 여섯째, 2차 요약된 심층 면담 내용을 통계처리(빈도, 백분율)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3차 요약 실시하였다.

<표 2> 성취자 면담 요인(변인)

영역	요인	문항 내용
교육	학교생활	전반적인 학교생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
	교사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교육방법	
전공	성공요인	지금 하는 전공(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현 전공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시점	현재 분야에 소질이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시기 현재 분야에 대한 교육의 시작 시기
	문제해결	새로운 아이디어 얻는 방법
가정 및 부모	부모	부모님에게서 특별히 영향을 받은 것
	가정	가정의 분위기나 환경
대인관계	멘토	인생에 영향을 가장 준 사람 성취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
	멘티	멘티를 지도하고 있다면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여가 시간	여가활동	진로, 성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취미, 여가활동 등
	책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
성공요인	원동력	성취하는 데 원동력이 된 것 고비(어려움)를 이겨낸 방법
	주요사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영향을 준 경험, 활동, 사건

### III. 연구 결과

국내 일반 성취자와 영재교육 수혜자들의 교육, 전공, 가정 및 부모, 대인관계, 여가시간, 성공요인의 6가지 분야에 대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도 분석 결과는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 1. 교육 분야

##### 가. 학교생활

전반적인 학교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즐거웠다(39%), 열심히 생활했다(19.8%), 스트레스를 받았다(12.3%),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다(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은 모두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시절에 관한 것이었다.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즐거운 경험이면서도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30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B30: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고교 시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에 진학하게 되어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쉬워진 것은 맞지만, 진학과 교육과정에 치우쳐 정신적 스트레스

를 풀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즐거움 보다는 진학과 지식 전달에 의미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B30: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표 3> 전반적인 학교생활

응답	빈도	%
즐거움	32	39.5
열심히 생활	16	19.8
스트레스	10	12.3
좋은 성적	9	11.1
활발한 교우관계	5	6.2
지루함	4	4.9
적극 참여 못함	4	4.9
원만한 생활	1	1.2
합 계	81	99.9

나. 교사

1) 기억에 남는 선생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관심을 보이고 인정해주며 이를 개발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는 응답(41.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잘 가르치거나(10%), 모범적인 선생님(10%), 영재를 이해해주거나(5%), 많은 시간을 같이해 준 선생님(5%)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였다(<표 4>).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의 발견 및 개발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으로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거나 적성과 특기, 재능을 알아주고 인정한 선생님(18.3%), 동기를 부여해주는 선생님(18.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것이 인격적이거나(16.7%)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선생님(10%)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응답이었다(<표 5>). 성취자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적성의 발견이 학창시절에 교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연극) 분야의 성취자인 A5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5: 무엇보다 학생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요.

Q: 그런 분이 계셨나요?

A5: 네. 저의 경험인데... 학교의 제도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후에 개인적으로 만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 희생해주시던 모습은 멋있고 잊을 수가 없어요.

<표 4> 기억에 남는 선생님

응답	빈도	%
관심, 지도, 격려, 배려	25	41.7
잘 가르침	6	10.0
모범적	6	10.0
없음	5	8.3
영재이해	3	5.0
많은 시간 같이함	3	5.0
공평	2	3.3
유머감각	2	3.3
기타	4	6.7
무응답	4	6.7
합 계	60	100

<표 5> 좋은 선생님

응답	빈도	%
관심, 재능발견 및 계발	11	18.3
동기부여	11	18.3
인격	10	16.7
이해와 존중	6	10.0
진실성	5	8.3
열성적 지도	4	6.7
바른길로 인도	2	3.3
사명감	2	3.3
전문지식	2	3.3
기타(책임의식, 카리스마)	2	3.3
무응답	5	8.3
합 계	60	99.8

다. 교육방법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차별화 교육 또는 관심분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16.4%), 탐구, 체험, 실습(16.4%), 토론(13.1%), 문제해결(13.1%)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고 동기부여해야 한다(11.5%)는 응답이 많았다(<표 6>). 대체로 지식의 전달보다는 지식의 생성 과정을 학습하거나,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좋은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성취자 중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S4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S4: 조금이라도 다른 학생에 비해 다른 학생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 그럼 그 차별성은 어떻게 나오냐? 그 학생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아주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하면은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확실하게 창의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중략) 학교에서도 커리큘럼을 작성할 때 관심된 부분에 흥미를 갖고 몰입을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집중 몰입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던 말예요.

<표 6>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응답	빈도	%
차별화, 잠재력개발 교육	10	16.4
탐구, 체험, 실습	10	16.4
토론	8	13.1
문제해결	8	13.1
흥미, 동기부여	7	11.5
자기주도적	6	9.8
개념 이해 쉽게	6	9.8
개방적	2	3.3
참여유도	2	3.3
분야별 균형	2	3.3
합 계	61	100

## 2. 전공 분야

### 가. 성공 요인

#### 1) 현재의 전공(직업) 선택 계기

성취자들이 현재의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재능을 발견하거나 흥미를 느껴서라는 응답(43.3%)이 가장 많았으며, 타인의 권유(16.7%), 사회적 인식(11.7%), 분야관련 체험(11.7%) 등으로 나타났다(<표 7>).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 분야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성취자 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A1과 예술(연극) 분야의 성취자 A5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1: 초등학교 때 주로 놀았는데, 담임교사가 농구에 소질 있다고 농구부를 추천했어요. 경쟁심이 강해서 지고나면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진 거예요.

A5: 대학교 진학 후 연극부 공연을 보니 가슴이 뛰고... “저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연극이 너무 좋아 대학교 2학년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 2) 전공분야에서 성공 위해 필요한 것

성취자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특히 많았다. 성공하기 위해서 성실과 노력(18.0%), 능력과 지식(17.0%), 흥미, 관심, 열정(17.0%)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관계(14.0%), 창의성(9.0%), 자기관리(7.0%), 끈기(5.0%)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8>). 성공을 위해서는 능력이나 지식 못지않게 부단한 자기관리나 열정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전공(직업) 선택 계기

응답	빈도	%
재능, 흥미	26	43.3
타인의 권유	10	16.7
사회적 인식	7	11.7
분야 관련 체험	7	11.7
학교교육	7	11.7
기타(운명 등)	2	3.4
무응답	1	1.7
합 계	60	100.2

<표 8> 전공분야에서 성공위해 길러야 할 것

응답	빈도	%
성실, 노력	18	18.0
능력, 지식	17	17.0
흥미·관심·열정	17	17.0
대인관계	14	14.0
창의성	9	9.0
자기관리	7	7.0
끈기(인내심)	5	5.0
올바름	4	4.0
긍정	3	3.0
여유	2	2.0
적극	2	2.0
기타(집중, 객관성)	2	2.0
합 계	100	100

나. 시점

1) 현재 분야에 소질이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시기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소질이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시기는 고등학교(28.3%)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교(20.0%), 중학교(15.0%), 초등학교(11.7%), 대학이후(11.7%)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9>). 전반적으로 늦은 시기에 소질이나 관심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좀 더 이른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분야에 대한 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 따로 정하기 곤란하고 흥미나 재능을 보일 때 바로 해야 한다(28.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학(23.3%), 중학교(15.0%), 고등학교(15.0%), 대학졸업 후(15.0%), 초등학교(3.3%)의 순이었다(<표 10>). 일반 성취자 중 예술(국악) 분야에 종사하는 A3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3: 이 분야는 교육의 시작이라기보다 그냥 어려서부터 좋아하니까 가족끼리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 갖고 놀고 이러면서 더 친숙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판소리도 듣고, 경기민요도 듣고, 정악, 클래식도 듣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표 9> 분야의 소질, 관심 발견 시기

응답	빈도	%
고등학교	17	28.3
대학교	12	20.0
중학교	9	15.0
초등학교	7	11.7
대학이후	7	11.7
특별히 없음	2	3.3
기대(희열 느낌 등)	4	6.7
무응답	2	3.3
합 계	60	100

<표 10> 분야 교육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

응답	빈도	%
흥미, 재능보일 때, 빠를수록 좋음	17	28.3
대학	14	23.3
중학교	9	15.0
고등학교	9	15.0
대학졸업 후	9	15.0
초등학교	2	3.3
합 계	60	99.9

다. 문제해결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취자들은 책, 논문, 학술대회(27.0%), 대화(23.8%), 사색 등 혼자만의 시간(22.2%) 등이 많이 제시되었다(<표 11>). 이 결과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색을 통해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재구성하는 시간이 문제해결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일반 성취자 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A1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1: 방향 설정을 못해 힘들 때 초등, 중고등학교 가서 운동장 보고, 과거 살던 곳 찾아가서 둘러 보고 최종 정리, 결정하고 돌아와서 실행하는 거죠.

<표 11>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응답	빈도	%
책, 논문, 학술대회	17	27.0
대화	15	23.8
혼자시간	14	22.2
공부	6	9.5
인터넷	3	4.8
기타	4	6.3
무응답	4	6.3
합 계	63	99.9

### 3. 가정 및 부모 분야

#### 가. 가정

전반적으로 가정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은 다양했지만, 화목했다(25.8%), 자율적이었다(22.6%),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이었다(12.9%)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 지속적인 자극이 있었다(11.3%), 엄격했다(11.3%)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12>). 이 결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창조적인 성취자의 부모는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연구 결과(문윤희, 한기순, 2010)와 일맥상통한다.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예로 영재교육 수혜자인 B3의 응답을 들 수 있다.

B3: 우리 가정은 매우 화목하고,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교육을 위해 매우 힘쓰시는 분들이었죠.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힘이 들면 다 같이 힘이 되어 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 나. 부모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 강조(15.6%), 교육과 학습 중시(14.1%), 성실(10.0%), 바르게 사는 것(9.4%),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9.4%) 등의 순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창조적인 성취자의 부모는 자녀의 독립성을 중요시했다는 연구 결과(문윤희, 한기순, 2010)와 일맥상통한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9의 응답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B9: 부모님은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 결정을 믿어 주셨어요.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도 몸에 배어 있죠.

<표 12> 가정 분위기나 환경

응답	빈도	%
사랑, 화목	16	25.8
자율적	14	22.6
좋지않음	8	12.9
교육관심	7	11.3
엄격	7	11.3
평범	6	9.7
이공계 분위기	1	1.6
무응답	3	4.8
합 계	62	100

<표 13>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응답	빈도	%
책임, 자율성	10	15.6
교육과 학습중시	9	14.1
성실	7	10.9
정직	6	9.4
사랑, 희생	6	9.4
대인관계	5	7.8
없음	5	7.8
전반적인 면	4	6.3
끈기	3	4.7
긍정적 성격	2	3.1
기타	3	4.7
무응답	4	6.3
합 계	64	100.1

#### 4. 대인 관계

##### 가. 멘토

##### 1)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으로는 부모님(32.3%)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료 및 선후배(18.5%), 지도교수님(16.9%), 배우자(13.8%), 초·중등 선생님(12.3%) 등으로 나타났다.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영재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표 14>).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19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B19: 어머니의 삶에 대한 태도로부터 모든 것에 있어 영향을 받았어요. 도덕관이나 가치관에서부터 일상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특별히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없을 정도죠.

##### 2) 성취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멘토)

성취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멘토)은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 및 대학원 선배나 친구(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인생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인적 환경이 성취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 성취자 중 인문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H1의 응답이 특별히 멘토가 없었던 사례에 해당한다.

H1: 저도 참 있었으면 좋겠는 게, 멘토링 해주실 분이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찾아다니고 있고요. 학생들이나 어린 사람들한테는 멘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거죠. 나비효과 같은 거죠. 20년 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routine하게 고민을 얘기를 한다든가 진로 상담하는 멘토가 있었다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표 14>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응답	빈도	%
부모님	21	32.3
동료, 선후배	12	18.5
지도교수님	11	16.9
배우자	9	13.8
선생님(초·중등)	8	12.3
위인	2	3.1
기타(경영자, 목사님)	2	3.1
합 계	65	100

<표 15> 성취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멘토)

응답	빈도	%
특별히 없다	25	41.7
(지도) 교수님	11	18.3
선배, 친구	5	8.3
산, 책	2	3.3
기타(성경, 목사님, 아버지 등)	4	6.7
무응답	13	21.7
합 계	60	100

나. 멘티

성취자들은 상당수(71.7%)가 멘티를 지도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대학, 대학원의 제자가 멘티(21.7%)인 경우였다(<표 16>). 즉, 직업상의 교육 활동 이외에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27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또 다른 영재교육 수혜자인 B34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학생을 멘티로 생각하고 있었다.

B27: 대학 제자가 저의 멘티입니다.

Q: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요?

B27: 인성에 대한 지도가 대부분이고, 진로 선택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합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솔직한 고백, 즉 인간을 둘러싼 사회의 작동 메커니즘 속에서 한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공부와 연구 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얘기하죠.

B34: 봉사활동으로 천안에서 수학학습법에 대한 강연을 하고 학생들을 멘토링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꿈을 가진 채 열심히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 깜짝 놀라 나를 뒤 돌아봤어요. 이런 친구들의 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표 16> 멘티를 지도하는 경우 그 계기

응답	빈도	%
없음	43	71.7
제자	13	21.7
멘티가 위해서	1	1.7
성격이 마음에 들어	1	1.7
캠프에서 매칭	1	1.7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생들	1	1.7
합 계	60	100.2

## 5. 여가 시간

### 가. 여가활동

진로, 성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취미, 여가활동으로는 운동(30.0%), 악기 연주나 노래(11.7%), 글쓰기나 독서(10.0%), 여행이나 낚시(5%),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5%), 대화(5%), 만들기나 그리기(5%) 등의 순으로 많았다(<표 17>). 예체능 활동이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낚시가 영향을 준 경우에는 인문 분야의 교수인 일반 성취자 H1의 응답을 예로 들 수 있다.

H1: 주변에 미국친구들은 공부도 안하고 커피숍 다니고 조깅 같은 거 하면서 성적을 잘 받는 것을 보니까 노는 것이 사실 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면서, 대학원 논문 쓰면서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요새 말하는 치유의 시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 나. 책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은 특별히 한 권을 정하기 어렵고 읽은 책 대부분이 조금씩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응답(41.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설(18.0%), 종교서적(11.5%), 자기계발 및 건강(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전공과 무관한 폭넓은 독서가 인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인문 분야의 성취자인 H2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H2: 나이별로 조금 다른 거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책을 읽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정화가 안 되고 계속 두렵고 이랬을 때는 명상에 관한... 또 미래에 관한... 나를 위로해주는 책, 뭐 그런거죠. 뭐 욕심내지 마라, 버리기... 그런 걸 읽어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 신형복 선생님 책 많이 읽었던 것 같구요.

Q: 요즘은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H2: 지금은 교육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어떤 선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딸이 중2인데 애가 너무 사춘기가 심해가지구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표 17> 진로, 성취에 영향 준 취미, 여가활동

응답	빈도	%
운동(등산, 당구, 축구 등)	18	30.0
연주, 노래	7	11.7
글쓰기, 독서	6	10.0
없음	6	10.0
여행, 낚시	3	5.0
컴퓨터 게임, 인터넷	3	5.0
대화, 설득	3	5.0
만들기, 그리기	3	5.0
바둑	2	3.3
요리	2	3.3
기타	7	11.7
합 계	60	100

<표 18> 인생에 영향을 준 책

응답	빈도	%
읽은 책 모두	25	41.0
소설	11	18.0
종교서적	7	11.5
자기계발, 건강	5	8.2
에세이	4	6.6
과학도서	3	4.9
자서전, 위인전	3	4.9
기타(고전, 시, 경제서적)	3	4.9
합 계	61	100

## 6. 성공 요인

### 가. 원동력

#### 1) 성취에 원동력이 된 것

성취의 원동력으로는 호기심, 자신감 등 개인 내적 특성이 많았고(30.0%), 가족, 친구 등 사람(26.7%), 재미, 성취감 등의 내적 보상(13.3%), 성실, 끈기 등의 태도(13.3%)가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었다(<표 19>). 어려움을 극복하고자한 목표가 바로 성취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는데, 예술(연극) 분야의 성취자인 A4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A4: 어떤 기자가 소위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빛이라고 답한 적이 있어요. 난타가 잘되고 나서 몇 년 전에 빛을 다 갚았는데, 그 때 뭔가 허탈하고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 것 같고 그랬었거든요.

#### 2) 어려움을 이겨낸 방법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했던 방법으로는, 꾸준히 노력하거나(28.3%) 마음을 다스리는(26.7%)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격려나 지원 등 다른 사람들의 도움(13.3%), 기분전환(10.0%) 등으로 나타났다(<표 20>).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기 위해,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과학 분야(전기공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성취자 S5의 응답은 정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예가 될 수 있다.

S5: 큰 사고로 40여 일을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허리 골절로. 그때가 전환점이기도 했고 힘들었던 경험이지요. 학교를 못가니까 시험도 못 봐서 C도 4개 정도 받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 계기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아, 두 번이구나. 최근 2년하고. 최근 2년 창업해서 회사운영 하는 거랑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견디는 것은... 제가 멘탈이 강해요. 도전이 왔다고 생각이 되면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견뎌내는데, 항상 돌아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표 19> 성취에 원동력이 된 것

응답	빈도	%
내적특성(호기심, 자신감 등)	18	30.0
사람(가족, 친구)	16	26.7
내적보상(재미, 성취감 등)	8	13.3
태도(성실, 끈기)	8	13.3
목표, 성취욕	5	8.3
능력	3	5.0
기타(신앙, 책)	2	3.3
합 계	60	99.9

<표 20> 고비(어려움)를 이겨낸 방법

응답	빈도	%
꾸준히 노력	17	28.3
마음 다스리기	16	26.7
타인의 격려, 지원	8	13.3
기분전환, 새로운 시도	6	10.0
시간이 해결	5	8.3
기타(봉사활동 등)	3	5.0
무응답	5	8.3
합 계	60	99.9

나. 주요 사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 활동, 사건으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사고, 이별, 만남 등 (16.7%) 사람들과의 인연에 해당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외국생활(13.3%), 직업 상 업무 수행(13.3%), 학업(11.7%) 등이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과학고등학교 합격과 학교생활(10%)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영재교육의 경험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가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이 영향을 준 예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재교육 수혜자인 B2의 응답을 들 수 있다.

B2: 초등학교 6학년 때 3월에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했는데, 모의고사에서 중위권 성적밖에 못 얻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당시에 담임선생님께서 워낙 자상하게 지도해주셔서 극복을 할 수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표 21>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 활동, 사건은?

응답	빈도	%
사고, 이별, 만남	10	16.7
외국생활(유학, 연구, 교환학생 등)	8	13.3
업무(교육, 프로젝트 참여)	8	13.3
학업(성적, 수업, 대학원연구)	7	11.7
입학(과학고, 카이스트) 및 학교생활	6	10.0
특별히 없음	5	8.3
대회참가, 수상	3	5.0
종교	2	3.3
기타(어머니훈육, 종교, 봉사활동 등)	4	6.7
무응답	7	11.7
합 계	60	100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취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영재교육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취자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등 창시절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취자들의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좋은 선생님은, 학생의 재능과 적성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은 차별화 교육 또는 관심분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 탐구, 체험, 실습, 토론 등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전공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취자들은 재능이나 흥미의 발견을 계기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 분야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실과 노력, 능력과 지식, 흥미, 관심, 열정 등이었다. 해당 분야의 교육은 흥미나 재능을 보일 때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취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소질이나 관심을 늦게 인식하였다. 이로부터 영재들이 좀 더 이른 시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책, 논문, 학술대회, 대화, 사색 등 혼자만의 시간에 많이 얻는 경향이 있었다. 영재들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색을 통해 아이디어들을 가치 있게 재구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성취자들의 가정환경이나 부모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화목과 자율성의 존중, 책임감 강조, 교육과 학습의 중시였다. 영재 자녀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여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성취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재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취에 영향을 준 사람(멘토)은 특별히 누구라기보다는 부모, 형제, 친구, 교수나 교사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직업상의 교육 활동 이외에 멘티를 지도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다섯째, 성취자들의 진로, 성취에 영향을 준 여가활동은 주로 운동, 음악, 독서이며,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은 특별히 한 권이라기보다 읽은 책 대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요인과 관련, 호기심, 자신감 등 개인 내적 특성이 성취의 원동력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꾸준히 노력하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해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비를 이겨내고 성취할 수 있기 위해, 어려서부터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에 있어서 고등학교 합격과 학교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음을 볼 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영재들의 인생에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재의 특징, 영재성의 발견 및 계발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학 활동에서 직접 탐구, 체험, 토론이 강화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한 개별화 수업으로 영재교육이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영재 부모를 대상으로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잠재력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성취자들이 영재 학생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역할모델이 되어주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및 연구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진로 탐색, 학업과 진로의 연결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영재교육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공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독서를 강조하고, 학교에서 체육, 오케스트라 등의 예체능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영재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섯째, 과학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등 정규교육으로서의 영재교육의 혜택을 확대하고, 영재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 ~'17).
- 김언주, 이군현, 문정화 (2000).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추적 조사 연구. *영재교육연구*, 10(1), 55-74.
- 문윤희, 한기순 (2010).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 비교. *영재교육연구*, 20(2), 395-426.
- 미래창조과학부 (2013).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13 ~'17).
- 박경빈 (2010). 한국 영재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영재교육연구*, 22(4), 823-840.
- 심재영, 김언주, 김종득 (2006). 과학영재관련 제2차 중단 연구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인재 양성현황 분석 및 정책개발. 한국과학재단.
- 양태연, 한기순, 박인호 (2012). 추적 연구를 통한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의 진로탐색. *한국교육*, 39(3), 85-105.
- 한국교육개발원 (2004). 영재성의 발달 및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중단 연구(2004-2018) : 1차년도 연구(검사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수탁연구 CR2004-41.
- 한국교육개발원 (2005). 영재성의 발달 및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중단 연구(2004~2018) : 2차년도(조사 대상자 선정 및 횡단 분석). 수탁연구 CR2005-35.
- Benbow, C. P. (1992). Academic achievement in mathematics and science of students between ages 13 and 23: Are there differences among students in the top one percent of mathematical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51-61.
- Benbow, C. P., & Lubinski, D. (1995). *Optimal development of talent: Responding educationally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Educational Forum.
- Clark, B. (2010). 영재교육과 재능개발. [김명숙, 서혜애, 이미순, 전미란, 진석연, 한기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본출간년도: 2007).
- McAdams, D. P. (1993). *The stories we live by: Personal myths and the making of the self*. New York: William Morrow.

- McAdams, D. P. (2006). *The Redemptive Self: Stories Americans Live B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nner-Williams, J. & Elizabeth, S. (2007). *High Level Thinking through Online Debate*. In R. Carlsen et al. (Eds.), *Proceedings of Society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07* (pp. 919-924). Chesapeake, VA: AACE.
- Perleth, C., & Heller, K. A. (1994). *The Munich longitudinal study of giftedness*. Subotnik, Rena Faye (Ed); Arnold, Karen D. (Ed), (1994). *Beyond Terman: Contemporary longitudinal studies of giftedness and talent*. pp. 77-114.
- Terman, L. M., & Oden, M. H. (1959). *The gifted group at mid-life: Thirty-five years' follow-up of the superior child*.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5.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Retrieved 2 June 2013.
- Weber, K., Maher, C., Powell, A., & Lee, H. S. (2008). Learning opportunities from group discussions: Warrants become the objects of debate.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68(3), 247-261.

= Abstract =

## An Exploration of the Direction of Gifted Education through Deep Interview of Socially Succeeded People

**Kyungbin Park**

*Gachon University*

**Jaeho Le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yungsoon Park**

*Kyung-in Women's University*

**Sun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iran Chun**

*Kongju National University*

**Jiyoung Ryu**

*KAIST*

**Seonghun Ah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onhwa Byun**

*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ed achievement of socially succeeded people, and to draw ways to improve gifted education. To do this, we interviewed 60 achievers. The interview was administrated as semi-structured deep interview about 6 areas - education, major, family and parent, personal relationship, leisure time activity, achievement and motivation of success. The results showed that achievers were active students during their school days. They thought differentiated education and student-centered lessons are important. Many achievers answered they do not have any personal mentee, and decision of majors and education should be matched with the perception of one's potential and interest. Exercises, music, and reading books were strongly suggested as leisure time activities, and the key inner factors for success were curiosity and self-confidence. Beneficiaries of gifted education perceived their

experience of gifted educ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chievement. Based on the these results, ways to improve gifted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Achiever, Factors that affected achievement, Beneficiaries of gifted education, Ways to improve gifted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15년 2월 3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4월 29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4월 29일